

# 코칭프로그램이 아동기 부모의 생활안전의식에 미치는 효과

## The Effect of a Coaching Program on the Life Safety Awareness of Parents with Children in Childhood

이유진\*, 홍은실\*\*, 최낙혁\*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한국뇌교육치료협회\*\*

Yu-Jin Lee(sjty5574@naver.com)\*, Eunsil Hong(f-chaery@hanmail.net)\*\*,  
NakHyeok Choi(nchoi@gachon.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칭프로그램이 아동기 부모의 생활안전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 A 초등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각 12명씩 무선배정하였다. 프로그램은 2024년 8월~9월까지 주 1회(120분), 총 4회기를 실행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Windows 25.0을 이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생활안전의식의 사전-사후검사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코칭프로그램은 생활안전의식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고, 아동기 부모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코칭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코칭프로그램 | 아동기 부모 | 생활안전의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oaching program on the life safety consciousness of parents in childhood. To this end, 12 people were wirelessly allocated to each of the parents of A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The program was executed once a week (120 minutes), a total of 4 sessions, from August to September 2024. For data processing, the Wilcoxon code ranking verification method was us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the mean pre-post-test of life safety consciousnes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using SPSS Windows 25.0. As a result, the coaching progra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life safety consciousness.

■ keyword : | Coaching Program | Childhood Parents | Life Safety Awareness |

## I. 서론

아동기는 발달 특성상 인지기술과 신체발달의 미성숙과 더불어 점차 주변 관심의 확대로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되면서

예기치 못한 더 많은 다양한 사고 위험에 놓이게 된다[1-3]. 사고의 유형을 보면 일반적으로 추락사고나 화상사고가 많으며 놀이사고, 보행자사고 등 생활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4]. 이렇게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은 사고에 의해 사망하는 전체 아동 중

접수일자 : 2025년 01월 31일  
수정일자 : 2025년 03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5년 03월 12일  
교신저자 : 최낙혁, e-mail : nchoi@gachon.ac.kr

57%를 차지한다. 국내의 경우는 14세 이하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12.8%에 해당하나, 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은 전체 연령 인구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37.4%를 차지한다[5].

보건복지부(2022) 조사 결과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한국이 8.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5.6명보다 1.5배가 많은 것으로 주요한 사망원인이 주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로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다[6-8]. 즉, 아동의 사망은 5명 중 1명은 생활안전사고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9].

이러한 생활안전사고의 장소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가정생활안전사고가 68.5%에 달한다[10]. 이와 같이 아동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조차 아동의 안전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2][5]. 이는 대부분이 보호자의 사고 예방에 대한 지식 부족[11][12], 무관심, 부모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하며[13] 무엇보다도 안전사고를 꾸준히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부모의 생활안전의식 결여이다[14][15]. 이는 안전의식이 높으면 사고 발생이 낮고 안전의식 정도가 낮으면 사고 발생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11]. 따라서 부모들이 생활안전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동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실천 행동을 높이기 위해선 부모의 생활안전의식이 높아야 한다[5][16].

권준수(2011), 윤선화·정윤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사고에 있어 특히 14세 이하 아동의 안전사고 90% 이상은 부모에 의해 예방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부모의 안전의식이 높으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4][17].

김신정·이정민·민지영(2017)의 연구에서도 안전의식이 높은 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부모대상 안전의식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18]. 이는 안전의식이 높은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이 생활화되어 있어 자녀들에게 안전생활수칙의 모범 행동을 보이는 등의 아동들로 하여금 안전생활의 모델링이 되어 안

전예방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2].

한편, 외국의 경우 터프티클럽(Tufty Club)에서 실시한 부모대상 안전교육[19]과 오스트리아의 'Safety Box' 보급을 통해 부모 대상 안전교육프로그램의 전개를 통해 생활안전의식 향상과 더불어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데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임을 입증하였다[20]. 이와 같이 부모는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며 아동의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환경변인이다[21][22]. 따라서 아동의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부모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으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14][17][22-2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되, 교육방법으로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코칭(coaching)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안전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안전사고 발생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6], 안전의식과 안전문화활동 영향 연구[27], 안전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인식연구[28][29],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 및 요구조사[30], 안전생활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16],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24][31][34] 안전의식과 안전사고 발생실태 연구[11][33]들로 실증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선행연구들 중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안전생활과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 연구[35],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규명한 연구[36][37][22]들이 있으나 이들 연구대상의 대부분이 영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아동기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부모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개입방법으로 코칭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한다. 코칭은 피코치가 자기주도적으로 자신

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현하도록 도와주며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38][39] 생활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개입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코칭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및 사회과학, 산업-조직심리학, HRD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통해 코칭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여기엔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능력[40][41]을 비롯하여 정서 지능[42], 조직 유효성 및 조직몰입[43][44], 자기 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45-47], 상호작용[48], 회복탄력성[49][50], 코칭스킬 및 감성 지능, 직무 만족[51][52], 정신건강 및 인성[53][54] 등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코칭프로그램의 적용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였다.

선행연구들 중 특히, 하정목(2024)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리더십 코칭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2022년~2023년 동안 H사에서 발생한 임직원 근로 손실 재해율(LTIR) 확인 결과 1년 사이 재해율이 50% 수준으로 감소 되었음을 밝혔고[55], Kines 등(2010)의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코칭을 도입한 결과, 안전의사소통 및 안전수준과 안전행동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밝혔다[56]. 코칭프로그램의 이와 같은 효과는 코칭이 전통적인 교육방법에 비해 좀 더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더 집중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며[57][58]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의식변화와 사고 예방 및 행동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59].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코칭프로그램은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 성찰, 인식하고 목표설정과 실행계획을 세우는 등 자기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므로[46]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제일의 가치관을 형성과 생활 속에서 안전생활이 체질화된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적인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은 대부분 영·유아 및 초·중학생이었으나, 본 연구는 아동기 부모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의식의 효과를 규명했다. 둘째, 생활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중재방법 면에서 기존 연구들은 전통적 교육방법을 적용했다면,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과 촉진자로서의 교수자 역할을 강조한 코칭기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려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코칭프로그램, 아동기 부모, 생활안전의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코칭프로그램이란 생활안전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6][14][15][22][41][44][53][55][57][60]를 근간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코칭프로그램을 주 1회(120분), 총 4회기 동안 실시한 것을 말한다. 둘째, 아동기 부모란 만 7~12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를 말한다. 셋째, 생활안전의식은 김혜원, 이명선(2002)이 개발한 생활안전의식 측정도구로 가정안전의식, 교통안전의식, 화재안전의식, 응급처치의식의 네 영역에서 나타난 점수를 의미한다[62]. 각 연구지표의 자세한 내용은 연구방법에서 설명한다.

표 1. 연구지표 개요

구분	정의
코칭프로그램	생활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주 1회(120분), 총 4회기 코칭프로그램
아동기 부모	만 7~12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
생활안전의식	가정안전의식, 교통안전의식, 화재안전의식, 응급처치의식

### III. 연구과정 및 방법

#### 1. 연구과정

코칭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계획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를 탐색하고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와 관련한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한 대상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로 선정하였다. 둘째, 설계단계에서는 계획단계에서 검토한 문헌을 토대로 본 연구의 코칭프로그램의 목표를 진술하고 학습성과지표를 설계하였다. 코칭프로그램의 효과 측정도구 선정 후 프로그램의 내용과 회기별 학습 내용을 선정·조직하였다. 셋째, 실행단계에서는 선정된 연구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에게 생활안전의식 사전검사를 통해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다음 코칭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게 실시하였다. 넷째, 평가단계에서는 코칭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생활안전의식 사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도식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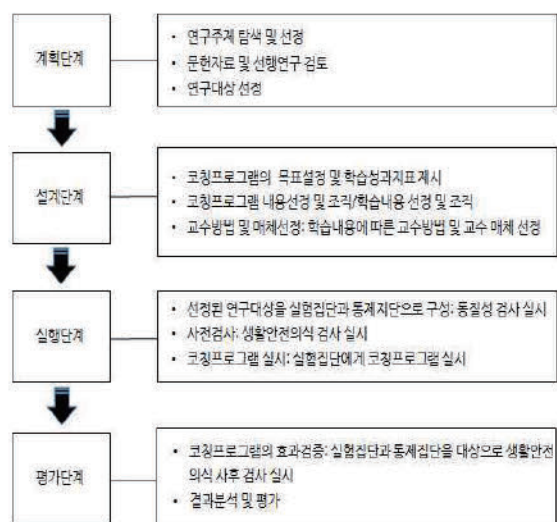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과정

##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집단구성은 아동기 자녀를 둔 모(母) 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둘째, 생활안전의식과 관련한 교육이나 유사 교육프로그램 및 코칭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현재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셋째, 본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빠짐없이 참석이 가능한 자이다.

실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초, 부산광역시 소재 A 초등학교에 본 연구를 사전 홍보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24명의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각 12명씩 무선배정(Random assignment)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실험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응답항목	실험집단		통제집단	
		N	비율	N	비율
연령대	30~35세	3	25.0%	4	33.3%
	36~40세	6	50.0%	6	50.0%
	41~45세	3	25.0%	2	16.7%
	전체	12	100.0%	12	100.0%
학력	초대졸	4	33.3%	3	25.0%

직업	대졸	6	50.0%	7	58.3%
	대학원졸	2	16.7%	2	16.7%
	전체	12	100.0%	12	100.0%
	서비스업	4	33.3%	4	33.3%
	자영업	3	25.0%	4	33.3%
	금융업	0	0.0%	2	16.7%
	유통업	2	16.7%	0	0.0%
	IT	1	8.3%	1	8.3%
첫 자녀 연령대	가사	2	16.7%	1	8.3%
	전체	12	100.0%	12	100.0%
	8~9세	9	75.0%	9	75.0%
	10~11세	3	25.0%	3	25.0%
	전체	12	100.0%	12	100.0%

[표 3]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분포의 동일성을 검증한 것이다.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생활안전의식의 4가지 하위요인에 대한 Mann-Whitney U Test 결과, 두 집단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문항	하위요인	집단	N=12		M-W U	p
			M	SD		
생활안전의식	가정 안전의식	통제	2.59	.31	67.500	.792
		실험	2.58	.14		
	교통 안전의식	통제	2.56	.14	69.000	.859
		실험	2.57	.20		
	화재 안전의식	통제	2.55	.14	46.000	.121
		실험	2.44	.14		
	응급 처치의식	통제	2.42	.11	56.500	.342
		실험	2.45	.15		

\* : p<.05, \*\* : p<.01, \*\*\* : p<.001

## 3. 연구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설계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방법을 채택하였다.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지를 하지 않고 실험집단은 코칭프로그램을 실험처지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에게 사후검사로 생활안전의식 검사를 실시하여 코칭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보다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실험설계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실험설계

실험집단	R	O <sub>1</sub>	X <sub>i</sub>	O <sub>3</sub>
통제집단	R	O <sub>2</sub>		O <sub>4</sub>

O<sub>1</sub>, O<sub>3</sub>: 사전검사(생활안전의식)  
 O<sub>2</sub>, O<sub>4</sub>: 사후검사(생활안전의식)  
 X<sub>i</sub>: 코칭프로그램 실시  
 R : 무선배정

실험을 실행하기 위해 첫째, 본 연구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생활안전의식에 대해 2024년 8월 26일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실험도구인 코칭프로그램의 실시는 2024년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주 1회, 총 4회기(1회기 120분)를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셋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30일 생활안전의식에 대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코칭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생활안전의식(가정안전의식, 교통안전의식, 화재안전의식, 응급처치 의식)은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처리를 위한 통계 분석은 SPSS Windows 25.0을 이용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생활안전의식의 사전-사후검사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통계 분석법인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 4. 측정도구와 코칭프로그램 설계

##### 4.1. 측정도구: 생활안전의식 검사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부모의 생활안전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혜원·이명선(2002)이 개발한 생활안전의식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62]. 하위요인으로는 가정안전의식 13문항, 교통안전의식 12문항, 화재안전의식 8문항, 응급처치의식 10문항으로 총 43문항이며 자기보고식 응답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채점방법은 5점 리커트(Likert Scale)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과 신뢰도 검사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생활안전의식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내용	Cronbach's α
가정 안전 의식	1 거실에서 배란다로 나가는 부위에 턱이 없어야 한다.	.938
	2 욕조가 설치된 벽면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3 플러그를 꽂거나 뺄 때는 전깃줄을 잡지 말고 플러그를 잡아야 한다.	
	4 부위에 가스 누출경보기나 화재경보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5 거실 탁자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플라스틱이나 천으로 씌워야 한다.	
	6 욕실이나 화장실에서는 전기용품 사용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7 계단 디딤 부분은 평평하고 동일한 너비와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8 전등 스위치는 이부자리/ 침대 근처에 있어야 한다.	
	9 계단 난간은 양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여의치 못할 때는 내려오는 오른쪽에 적어도 1개의 견고한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10 욕실, 화장실에서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해야 한다.	
	11 독성이 강한 가정용 화학제품은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12 요리기구 손잡이는 가스렌지 안쪽 방향으로 놓이도록 해야 한다.	
	13 카펫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으로 고정해야 한다.	
교통 안전 의식	1 길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운행하고 있는 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931
	2 보행자용 신호가 녹색일 때에도 좌우의 자동차를 확인하면서 횡단해야 한다.	
	3 차의 바로 앞이나 뒤에서 길을 건너지 않는다.	
	4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해야 한다.	
	5 자전거를 탈 때는 뽀비는 골목길에서는 자동차가 접근 신호를 보내면 피해주어야 한다.	
	6 자전거를 탈 때 비 오는 날은 노면이 미끄러워 자동차의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횡단보도에서 무리한 횡단을 삼간다.	
	7 승객이 먼저 내린 후에 차례로 타야 한다.	
	8 차내에서 머리카락이나 손을 내매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9 정지하게 될 교통편에서 떨어진 지정된 장소에서 차를 기다린다.	
	10 자전거를 타기 전 양쪽 발끝이 지면에 닿을 정도로 조절되어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	
	11 아간에는 후미등이나 반사 기제가 없는 자전거를 타면 안된다.	
	12 자전거를 탈 때에는 차도의 후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한다.	
화재 안전 의식	1 비상구의 표시등이 정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936
	2 어떤 장소에도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3 화재발생 시 비상벨을 울려 주위에 알려야 한다.	
	4 건물의 각에서 건물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경로의 출구와 비상구의 표시를 익혀둬야 한다.	
	5 화재 시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되며 손잡이가 뜨거울 때는 그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6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해야 하며 어디서 불이 시작되었는지 현재 건물의 상태가 어떤지도 얘기해야 한다.	
	7 대피할 때는 불길의 반대편으로 가야 한다.	
	8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해야 한다.	

표 5 계속

하위 요인	문항 내용	Cronbach's $\alpha$	
응급 처치의식	1	구급상자의 비치 장소는 일정한 곳에 두어야 한다.	.953
	2	구급상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교체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해 두어야 한다.	
	3	구급상자는 습기가 없는 건 냉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4	119전화 시에는 사고시간과 장소, 사고원인과 부상자의 상태 주위의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5	의식이 없는 환자, 복부에 심한 상처를 입은 환자, 출혈이 심한 환자에게는 먹을 것이나 물을 주어서는 안된다.	
	6	중독 시 환자를 토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은 한 환자가 구토하게 해서는 안 된다.	
	7	의식을 잃은 환자는 혈액 순환을 위해 옆으로 눕혀야 한다.	
	8	화학약품이나 가정용 독소를 삼킨경우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우유나 물을 준다.	
	9	광범위한 화상인 경우 의복을 벗기는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위에서 물을 흘려서 차갑게 해야 한다.	
	10	출혈 시 골절되지 않았다면 손을 심장 위로 올려야 한다.	

#### 4.2. 코칭프로그램 설계

코칭프로그램은 총 4회기로 구성하였다. 1회기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명하고 집단의 규칙을 정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집단구성원들 간의 라포형성과 친밀감 형성을 위해 간략한 자기소개와 더불어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것, 알고 싶은 것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서로 존중하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 간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또한 사고 예방의 5단계와 생활안전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와 참여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전략으로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사례 영상을 시청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과 가정안전의식에 대한 코칭을 적용하여 단계별 코칭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에게 부족했던 가정안전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 안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등의 가정안전의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2회기에서는 앞서 진행된 가정안전의식과 관련한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교통안전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고 본 회기의 동기유발을 위해 교통안전과 관련한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코칭적용에서는 보

행 시 안전준수사항을 비롯하여 자전거와 차 운행 시 안전준수사항과 기타 교통안전에 대한 준수사항들에 대해 자신의 현실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실천계획과 대안들을 탐색하고 실행의지를 높이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의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3회기에서는 2회기의 내용들을 되짚으며, 본 활동인 화재안전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와 화재안전사고 동영상 사례를 통해 화재의 위험성과 화재안전 준수사항에 소홀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 공유하며 화재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 실습을 통해 화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였고 코칭적용에서는 비상구 관리, 화재대피 시 준수사항, 기타 화재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한 자신의 현재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대안을 설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화재안전의식 향상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4회기에서는 3회기 내용에 대해 상기시키고 본 활동인 응급처치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와 본 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해 응급처치와 관련한 동영상 사례를 시청하고 느낀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칭 적용 시 구급상자 관리와 119 신고 시 준수사항, 출혈 및 골절 시 준수사항 등 기타 응급상황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항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임리히법과 지혈법,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응급처치의식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회기별 세부내용과 더불어 매 회기마다 팀별 개별 발표와 서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별 경험들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제시한 생활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코칭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과 함께 회기별 학습방법, 매체 및 자료, 회기별 시간 배분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6]와 같다.

표 6. 생활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코칭프로그램

회기	주제	목표	활동내용	학습방법, 매체 및 자료
1회기 (150분)	프로그램 소개 / 구성원간의 친밀감 형성 / 가정 안전의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li> <li>2. 집단의 규칙을 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li> <li>3. 집단구성원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li> <li>4. 사고 예방 5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li> <li>5. 가정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li> <li>6. 욕실과 화장실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li> <li>7. 계단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li> <li>8. 가스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li> <li>9. 전기용품 사용과 관련된 안전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li> <li>10. 기타 가정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3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명하기/ 코칭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전체 운영과정 설명하기</li> <li>2. 집단규칙 및 서약서 작성하기</li> <li>3. 참여자들간의 자기소개하기</li> <li>4. 사고 예방의 5단계 설명하기: 각종 대형사고 사례 동영상 시청(느린 점 함께 나누기)</li> <li>5. 생활안전의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가정안전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동기부여: 가정안전사고에 대한 사례 동영상시청(느린 점 발표하기)</li> <li>6. 본 활동 코칭과정 설명 및 코칭적용: 가정안전의식에 대해 코칭하기(목표 6~10에 대한 코칭)</li> <li>7. 본 활동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주고받기</li> <li>8. 종합정리 및 소감 나누기</li> <li>9. 평가서 작성</li> </ol>	-학습방법- • 강의 • 활동 중심 • 발표 및 피드백 주고 받기  -매체 및 자료- • PPT • 동영상 자료 • 워크북 • 필기도구 • 각종 스티커
2회기 (150분)	교통 안전의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li> <li>2. 보행 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li> <li>3. 자전거를 탈 때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li> <li>4. 운행 중 차 안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li> <li>5. 승하차 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li> <li>6. 기타 교통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3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안전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동기부여: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례 동영상 시청(느린 점 발표하기)</li> <li>2. 본 활동 코칭과정 설명 및 코칭적용: 교통안전의식에 대해 코칭하기(목표 2-6에 대한 코칭)</li> <li>3. 본 활동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주고받기</li> <li>4. 종합정리 및 소감 나누기</li> <li>5. 평가서 작성</li> </ol>	-학습방법- 1회기와 동일  -매체 및 자료- • PPT • 워크북 • 싸인펜 • 필기도구
3회기 (150분)	화재 안전의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재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li> <li>2. 화재 발생 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li> <li>3. 비상구 관리 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li> <li>4. 화재 대피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li> <li>5. 소화기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li> <li>6. 기타 화재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3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재안전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동기부여: 화재안전사고에 대한 사례 동영상 시청(느린 점 발표하기)</li> <li>2. 본 활동 코칭과정 설명 및 코칭적용: 화재안전의식에 대해 코칭하기(목표 2-6에 대한 코칭)</li> <li>3. 본 활동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주고받기</li> <li>4. 종합정리 및 소감 나누기</li> <li>5. 평가서 작성</li> </ol>	-학습방법- 1회기와 동일  -매체 및 자료- • PPT • 동영상 자료 • 워크북 • 필기도구
4회기 (150분)	응급 처치의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응급처치의식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li> <li>2. 구급상자 관리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li> <li>3. 119 신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li> <li>4. 의식이 있는 환자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li> <li>5. 화상 발생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li> <li>6. 출혈 및 골절 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li> <li>7. 기타 사고별 응급상황에 따라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3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응급처치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동기부여: 응급처치 사례 동영상 시청(느린 점 발표하기)</li> <li>2. 코칭에 대한 설명 및 코칭적용: 응급처치의식에 대해 코칭하기(목표 2-7에 대한 코칭/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실습)</li> <li>3. 본 활동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주고받기</li> <li>4. 종합정리 및 소감 나누기</li> <li>5. 평가서 작성</li> </ol>	-학습방법- 1회기와 동일  -매체 및 자료- • PPT • 워크북 • 싸인펜 • 필기도구 • 각종 스티커 • 애니인형

IV. 연구결과

코칭프로그램이 생활안전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생활안전의식 검사 사전-사후 평균 비교 검사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본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생활안전의식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의식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정안전의식(Z=-3.062, p<.01), 교통안전의식(Z=-3.062, p<.01), 화재안전의식(Z=-3.065, p<.01), 응급처치의식(Z=-3.064, p<.01)은 p<.01 이하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실험집단의 생활안전의식 하위요인별 사전-사후검사 평균 비교 결과

문항	하위요인	집단	N=12		Z	p
			M	SD		
생활안전의식	가정 안전의식	사전	2.58	0.14	-3.062	.002**
		사후	3.71	0.34		
	교통 안전의식	사전	2.57	0.20	-3.062	.002**
		사후	3.63	0.26		
	화재 안전의식	사전	2.44	0.14	-3.065	.002**
		사후	3.89	0.35		
응급 처치의식	사전	2.45	0.15	-3.064	.002**	
	사후	3.75	0.37			

\* : p<.05, \*\* : p<.01, \*\*\* : p<.001

통제집단의 생활안전의식 하위요인별 사전-사후검사 평균 비교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본 바와 같이 통제집단의 생활안전의식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정안전의식( $Z=-.157, p>.05$ ), 교통안전의식( $Z=-.222, p>.05$ ), 화재안전의식( $Z=-.276, p>.05$ ), 응급처치의식( $Z=-1.508, p>.05$ )은  $p>.05$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통제집단의 생활안전의식 하위요인별 사전-사후검사 평균 비교결과

문항	하위요인	집단	N=12		Z	p
			M	SD		
생활안전의식	가정 안전의식	사전	2.59	0.31	-.157	.875
		사후	2.60	0.13		
	교통 안전의식	사전	2.56	0.14	-.222	.824
		사후	2.54	0.16		
	화재 안전의식	사전	2.55	0.14	-.276	.783
		사후	2.54	0.16		
	응급 처치의식	사전	2.42	0.11	-1.508	.132
		사후	2.40	0.19		

\* :  $p<.05$ , \*\* :  $p<.01$ , \*\*\* :  $p<.001$

이상에서 제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생활안전의식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평균 비교결과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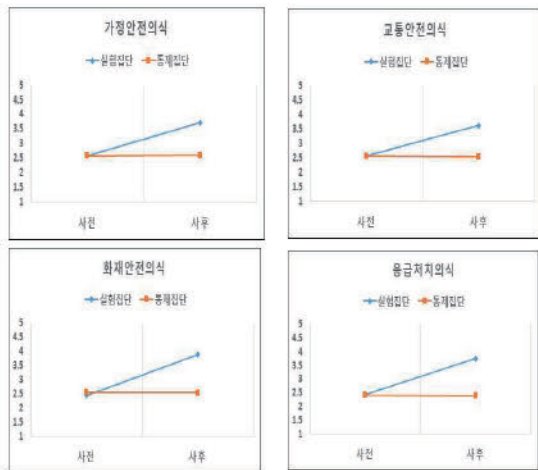


그림 2. 생활안전의식 사전사후 검사 차이의 평균 비교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과 문제에 따라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코칭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생활안전의식의 하위요인인 가정안전의식( $Z=-3.062, p<.01$ ), 교통안전의식( $Z=-3.062, p<.01$ ), 화재안전의식( $Z=-3.065, p<.01$ ), 응급처치의식( $Z=-3.064, p<.01$ )이  $p<.01$  이하로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어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하정목(2024)의 연구에서 코칭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조직의 안전문화 수준 중 안전 의지와 의식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다[55]. 또한 이지동, 오세진, 문광수(2018)의 연구에서 안전 리더십 코칭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행동의 하위요인인 안전인식 및 의식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다[63]. 그리고 코칭프로그램이 서비스업, 교육업, 광고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 향상에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특히 안전분야에 매우 효과적인 처치임을 밝힌 Theeboom 등(2014)의 연구를 지지한다[64]. 뿐만 아니라 코칭프로그램의 적용은 안전의사소통과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 등 안전 분야에 매우 유용한 기법임을 시사한 Kines 등(2010)의 연구를 지지한다[56]. 이처럼 본 연구가 여러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에는 코칭이 안전 가치 촉진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불안정한 행동을 감소시키고 안전행동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59].

다음으로 코칭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험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1회기에서는 참여자들 대부분이 평소 가정생활에서 안전예방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반성하고 가정에서의 다양한 위험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제시하는 등의 가정안전의식 향상에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2회기에서는 생활 속에서 무심코 한 행동들이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고 교통안전수칙을 잘 지켜야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이는 등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에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었다. 3회기에서는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과 사용법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화재사고의 예방 및 사고 시 준수행동사항을 숙지하는 등 화재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4회기에서는 평소 자신의 응급처치의식이 낮음을 성찰하고 올바른 응급처치방법을 익히게 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경험보고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참여자 대부

분의 반응들이 생활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위험환경으로부터 안전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생활안전의식이 보다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칭프로그램이 안전과 행동을 목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개인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코칭의 효과를 규명한 하정목(2024), 고현순(2024), 안민희(2020), 정지우(2020), 양미경(2020)의 연구에서도 코칭프로그램의 강점은 코치와 피코치간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목표의 명확한 제시와 목표 실현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고 실천행동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을 볼 때[44][46][47][54][55],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코칭활동이 생활안전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실행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부산광역시 소재의 A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를 타 지역, 타 학교 부모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지역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코칭프로그램은 총 4회기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효과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후검사가 필요하며 생활안전의식이 일상 생활 속에서 안전행동실천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생활안전의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실증연구로 생활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규명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특히 코칭프로그램을 중재방법으로 적용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요구를 수렴하고 그에 적합한 생활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코칭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1] 채명옥, *학령기 아동의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관한 구조모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2] 김인주, *유아기 자녀안전에 대한 부모의 지식과 실천 및 부모교육 요구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 박형식, 김정주, 지상숙, “부모의 안전지식, 안전교육 실행정도과 유아의 안전지식, 위험요소 예측능력 간의 관계,”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pp.221-241, 2011.
- [4] 강희숙, “재난 유형 관련 용어의 사용 추이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빅카인즈 뉴스 텍스트를 중심으로,” *배달달*, 제67권, pp.1-32, 2020.
- [5] 한국소비자원, *2019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2020.
- [6]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안전사고통계*, 2022.
- [7] 채명옥,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 pp.2713-2725, 2015.
- [8] 통계청,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2023.
- [9] A. Dellinger and J. Gilchrist, “Leading causes of fatal and nonfatal unintentional injury for children and teens and the role of lifestyle clinicians,” *Am J Lifestyle Med*, Vol.13, pp.7-21, 2019.
- [10] 송은미, *중학생의 주생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11] 심은순, *초등학생의 안전의식 및 실천정도과 안전 사고 발생 실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2] L. Peterson and L. Saldana, “Accelerating children’s risk for injury: Mothers’ decisions regarding common safety rul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19, No.4, pp.317-331, 1996.
- [13] D. Routh, “Injury control research in pediatric psychology: A commentary and a proposal,”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Vol.22, pp.495-498, 1997.
- [14] 김진혁, *초등학생의 안전의식 신장을 위한 공익광고 활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

- 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15] 정선아, *중학생의 안전의식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주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16] 이희택, *생활안전의식과 안전지각이 안전생활 실천 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17] 윤선화, 정윤경, “영유아기 어머니들의 안전지식, 안전인식과 안전실천과의 관계 연구,” *육아지원연구*, 제7권, 제1호, pp.115-133, 2012.
- [18] 김신정, 이정민, 민지영,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행동,” *아동건강간호학회지*, 제23권, 제1호, pp.91-100, 2017.
- [19] J. A. Thomson and K. M. Whelan, “A community approach to road safety education using practical training methods: The Drumchapel project,” 1997.
- [20] W. Dick, L. Carey, and J. O. Carey, *The systematic design of instruction*, Upper Saddle River(NJ): Merrill/Pearson, 2009.
- [21] 김희선, *영아안전 및 가정안전환경에 대한 부모의 의식과 실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2] 한수연, *부모 대상 영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23] 김진희,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안전한 환경 및 안전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4] 이창희,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5] 하선혜, 서현아, “부모의 안전실천 수준에 따른 가정내 영유아 자녀의 안전사고 경험,” *생태유아교육연구*, 제13권, 제1호, pp.31-55, 2014.
- [26] 장미혜, 장혜경, 강민정, 정명은, “가정내 안전사고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2013권, pp.1-176, 2013.
- [27] 차일권, *안전의식과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일반인, 건설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28] 유미숙, *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조사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9] 구현자,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와 교사 인식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0] 박재희, 김소연, 이규녀,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처한 안전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26권, 제3호, pp.171-189, 2013.
- [31] 서혜승,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참가자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32] 정선아, 주수연, “중학생의 안전의식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주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제6호, pp.1373-1398, 2020.
- [33] 박대성, 김광석, “초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사고 발생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지*, 제9권, 제2호, pp.5-20, 2005.
- [34] 한영숙, 최태식, “경험중심 안전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고와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3권, 제4호, pp.47-79, 2006.
- [35] 이재남, 박지원, 정명애, “초등학교 아동의 안전교육이 안전생활 실천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간호학회지*, 제12권, 제4호, pp.506-513, 2006.
- [36] 권상순,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7] 김신정, “학령기 아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아동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pp.20-29, 2010.
- [38] 김종운, 정보현, “학습코칭 프로그램이 방과후아카데미 고학년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4권, 제2호, pp.146-165, 2012.
- [39] 황금숙, *특성이론기반 집단진로코칭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40] 배수현, 박정숙,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과외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1권, 제2호, pp.202-214, 2015.
- [41] 이대겸, 주용국, 홍은실, “해군부사관의 리더십핵심 역량 향상을 위한 코칭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인적자원개발연구*, 제20권, 제4호, pp.1-29, 2017.
- [42] 김주연,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43] 장미화, 탁진국, “국내 코칭과 조직유효성의 관계: 체

- 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HRD연구, 제21권, 제3권, pp.189-219, 2019.
- [44] 안민희, *코칭프로그램이 중간관리자의 진정성 리더십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45] 이정숙, “코칭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부적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코칭연구, 제7권, 제1호, pp.77-96, 2014.
- [46] 고현순, “셀프코칭 프로그램이 중장년의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커리어·학습코칭연구, 제6권, 제1호, pp.1-23, 2024.
- [47] 정지우, “진로코칭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한국커리어·학습코칭연구, 제4권, 제1호, pp.77-103, 2020.
- [48] 양승연, 도미향, “보육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대한 코칭프로그램 효과 분석,” 코칭연구, 제8권, 제1호, pp.103-122, 2015.
- [49] 정하윤, 도미향, “중년기 여성을 위한 회복탄력성 향상 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코칭연구, 제14권, 제2호, pp.215-247, 2021.
- [50] 임그린, 탁진국,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정서중심 그룹코칭의 효과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코칭, 제3권, 제1호, pp.1-23, 2019.
- [51] 김진수,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기업관리자의 코칭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52] 장백희, *간호관리자를 위한 코칭 역량 개발 프로그램 적용 효과: 자기효능감과 직무몰입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53] 최미숙, *정신건강 중심 부모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유치원 어머니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54] 양미경, “대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코칭역량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코칭연구, 제13권, 제2호, pp.93-103, 2020.
- [55] 하정목, *정유업 관리자에 대한 안전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이 기업의 안전문화와 안전행동에 미치는 효과: 안전 역량과 안전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 [56] P. Kines, L. P. Andersen, S. Spangenberg, K. L. Mikkelsen, J. Dyreborg, and D. Zohar, “Improving construction site safety through leader-based verbal safety communication,” *Journal of Safety Research*, Vol.41, No.5, pp.399-406, 2010.
- [57] 양복이,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58] R. Dilts, *비전과 변화를 위한 긍정코칭*, 박정길 역, 서울: 아카데미북, 2009.
- [59] E. S. Geller, S. R. Perdue, and A. French, “Behavior-based safety coaching: 10 guidelines for successful application,” *Professional Safety*, Vol.49, No.7, pp.42-49, 2004.
- [60] 김혜금, “아동의 위험 감수 행동과 위험에 대한 인지와 두려움과의 관계,” 아동중심 실천연구, 제3권, 제2호, pp.1-16, 2006.
- [61] 손정희, *IPEN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안전생활역량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62] 김혜원, 이명선, “안전의식 측정 척도 개발 연구: 서울시 일부 중학생을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19권, 제1호, pp.87-107, 2002.
- [63] 이지동, 오세진, 문광수, “안전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행동에 미치는 효과: 행동기반 안전관리(Behavior Based Safety: BBS)를 중심으로,” 한국안전학회지, 제33권, pp.115-122, 2018.
- [64] T. Theeboom, B. Beersma, and A. E. Van Vianen, “Does Coaching Work?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Coaching on Individual Level Outcomes in an Organizational Context,”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9, No.1, pp.1-18, 2014.

저 자 소 개

이 유 진(Yu-Jin Lee)

정회원



- 2025년 2월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국가안전전공 박사수료)
- 2022년 2월 : 부경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현재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안전정책, 안전교육 등

홍 은 실(Eunsil Hong)

정회원



- 2011년 2월 : 경성대학교 교육학과 (HRD·평생교육 박사졸업)
- 2020년 5월 ~ 현재 : 한국뇌교육치료협회장

〈관심분야〉 : 뇌교육, 문화예술교육

최 낙 혁(NakHyeok Choi)

정회원



- 2016년 12월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PhD in Public Affairs)
- 2020년 3월 ~ 현재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정책분석평가, 감사